

「녹색의전화」朴英淑씨
「올해의환경인」에 뽑혀
환경기자클럽선정

「녹색의전화」朴英淑
대표(58·平
民黨 부총
재)가 20일
한국환경기자클럽이
선출하
였다.

90. 12. 20

「올해의 환경인」 뽑혀
◇朴英淑「녹색의전화」
대표(平民
黨 부총재)
는 20일 회
근 박종한
한국 환경
기자클럽에
의해 환경보전활동에
공로로 첫번째「올해의
환경인」으로 선정됐다.
중앙 90. 12. 20

중앙 90. 12. 20

중앙 90. 12. 20

「올해의 환경인」에 뽑혀
한국환경기자클럽은 20
일 「올해의 환경인」에 녹색
의전화 대표 朴英淑씨(58·
평민당 부총재)를 선정했
다.

환경기자클럽이 발족된
후 첫번째 올해의 환경인으로
뽑힌 박씨는 국회보사위
원으로 올들어 설악산 훼손
판단후조설·고산TDI화
학교장선출 등에 따른 주요

환경문제 현장조사 및 대책
마련에 앞장섰으며, 지난 8
월 공해문제상담을 위한
「녹색의전화」를 개설해 환
경보전에 기여했다.

30인 12. 20

30인 12. 20